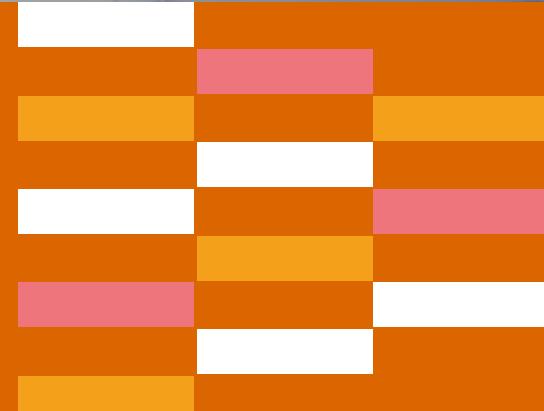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분석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자문센터 | May 2023



Contents

1.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에 대한 분석	01
1.1 2019년 이후 4개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현황	02
1.2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사유인 ‘중요한 취약점’ 관련 Keyword 분석	04
1.3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회사의 지적사항(Keyword) 평균 항목수	05
1.4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구성요소 관점의 Keyword 분석	06
2. 경영진과 감사(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07
2.1 핵심감사항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사유	08
2.2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인 회사 중 재무제표 적정의견의 비중	10
2.3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일치율	11
2.4 맺음말	12

1.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에 대한 분석



2022년은 별도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수준의 인증이 적용된 첫해이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수준의 인증대상의 확대가 완료된 해이기도 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수준 강화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1 2019년 이후 4개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현황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이 감사로 상향되는 개정 외부감사법 적용 이후 4개년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4개년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현황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참고 (2018년)
	1천억 미만	1천억 이상	5천억 이상	2조 이상	계	1천억 미만	1천억 이상	5천억 이상	2조 이상	계	1천억 미만	1천억 이상	5천억 이상	2조 이상	계	1천억 미만	1천억 이상	5천억 이상	2조 이상	계	
유가증권 (KOSPI)	7	12	2	-	21	9	3	3	-	15	4	7	3	1	15	6	3	1	4	14	10
코스닥 (KOSDAQ)	28	24	1	-	53	51	11	1	-	63	52	11	1	-	64	47	15	1	-	63	46
총 합계	35	36	3	-	74	60	14	4	-	78	56	18	4	1	79	53	18	2	4	77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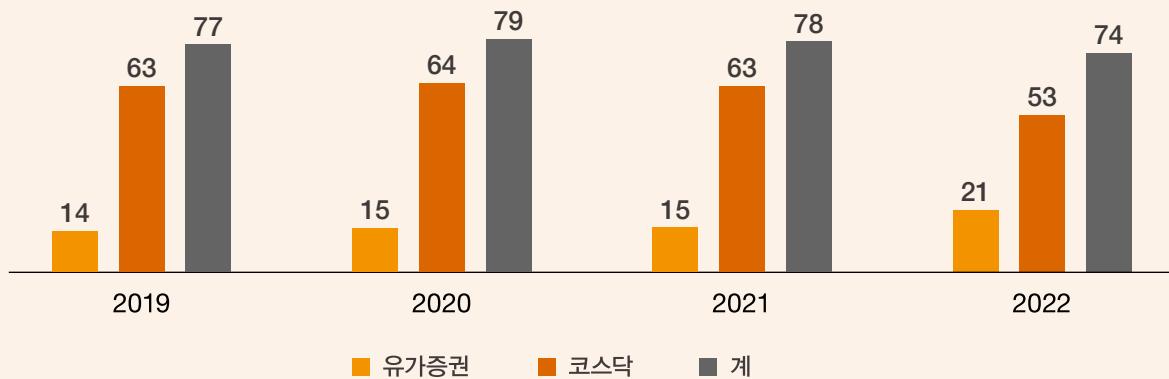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적용된 2019년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변형된 회사수는 2019년 4개사, 2020년 5개사, 2021년 4개사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2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총 39개사 (5천억 이상 3개사, 1천억 이상 회사 36개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변형되었다. 한편, 2021년과 더불어 2022년에도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 이상인 회사는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인 것이 특기할 사항이다.

전체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회사 수의 연도별로 추이를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도입된 첫해인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변형 회사의 수가 증가($\Delta 21$)하였으나, 이후에는 70여개사 수준에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 20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된 자산규모별 감사대상 확대가 완료
- 1천억 이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확대에 따라 감사의견 변형 회사수가 급격히 증가 ('21년 4개사 → '22년 39개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인 1천억 미만 회사의 검토의견 변형이 급격히 감소 ('21년 60개사 → '22년 35개사)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변형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회사는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2022년 의견변형이 이루어진 회사는 전년도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임.

그래프1. 과거 4개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회사 추이



1.2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사유인 '중요한 취약점' 관련 Keyword 분석

공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사유를 ① 부정을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통제와 ② 재무제표 오류를 감소시키거나 발견하기 위한 통제로 구분하여, 통제 미비점과 관련된 Keyword를 분석한 결과, 부정과 관련된 미비점이 약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오류와 관련된 미비점이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연도별로 비교할 때 그 비중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표2.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요한 취약점 Keyword 분석 – 부정 및 오류

대분류	소분류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항목	비중	항목	비중	항목	비중	항목	비중
부정을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통제 (39%)	자산횡령: 자금 및 법인인감 등	22	15%	22	18%	23	18%	24	20%
	부패: 고위경영진, 특수관계자거래 등 타당성	24	16%	10	8%	17	13%	19	16%
	허위보고: 이사회 등의 기능미비	9	6%	7	6%	7	5%	4	3%
	통제환경 및 내부감시기구의 충분성	6	4%	3	3%	1	1%	3	2%
	소계	61	41%	42	35%	48	37%	50	41%
오류를 감소시키거나 발견하기 위한 통제 (61%)	재무제표 재작성 및 중요한 감사수정사항	30	20%	29	24%	26	20%	21	17%
	재무보고 통제활동 설계 및 운영 미비	32	22%	28	24%	33	25%	30	25%
	자산의 평가 및 회수 가능성	20	14%	18	15%	19	15%	16	13%
	정책 및 인력부족	4	3%	2	2%	5	4%	5	4%
	소계	86	59%	77	65%	83	63%	72	59%
합계		147	100%	119	100%	131	100%	122	100%

먼저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제도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미비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자금거래의 투명성, 법인인감 관련 통제 등 자금 및 횡령 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통제미비점 지적은 소폭 감소한 반면, 고위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특수관계자 등과의 거래의 타당성, 그리고 이사회 기능 미비 등 자금의 유출이 이루어지는 제반 과정 및 절차와 연관된 직·간접적인 미비점을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약 30% 내외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2년의 경우, 부정을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통제와 관련된 외부감사인의 미비점 지적 비율은 41%이며 자산총액 1천억 이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회사로 한정시에는 그 비율이 45% 정도로, 2021년 35% 대비 급격한 증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의 확대와 최근 경영진의 부정 및 자금사고 등과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이해됨.

한편, 재무제표에 포함될 수 있는 오류를 감소시키거나 발견하기 위한 통제제도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이 지적한 미비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2021년까지는 감사인 지정제 등에 따른 강화된 외부감사 영향으로 재무제표 재작성 및 감사인이 발견한 중요한 수정사항과 관련된 중요한 취약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의 경우 해당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통제상 미비점 지적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를 감소시키거나 발견하기 위한 통제상 미비점의 비중은 2021년 65% 대비 2022년에는 59%로 감소하였음.

전반적으로 부정 및 횡령 등 자금 관련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강조 추세로 인해 이와 관련된 외부감사인의 지적은 증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직접적인 자금 관련된 통제 이외에도 이사회의 기능이나 거래의 타당성 등 직간접적인 통제제도의 중요도에 대한 관심도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외부감사인에 의해 발견된 재무제표 수정사항 등으로 인한 미비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결산 및 회계관점의 접근과 더불어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라는 “통합적인 내부통제” 측면의 접근도 함께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회사의 지적사항(Keyword) 평균 항목수

각 연도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회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평가자료의 미제시’ 등 사유로 인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회사를 제외하고 통제미비점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회사를 모집단으로 각 회사당 통제미비점 지적항목(Keyword)의 평균 개수는 아래와 같다.

2019년부터 3년간 회사당 평균 지적건수는 2.3개에서 2.5개 내외였으나, 2022년 회사당 지적건수는 평균 2.8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1천 억 이상으로 확대되어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 형성을 위해 보다 다방면으로 복합적인 고려를 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3.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회사 지적사항(Keyword) 평균 건수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전체 의견변형 회사 수	74개사	78개사	79개사	77개사
범위제한 의견변형 회사 차감	22개사	27개사	26개사	26개사
차감 후 분석대상 의견변형 회사	52개사	51개사	53개사	51개사
총 Keyword 항목 합계	147	119	131	122
의견변형 회사당 지적사항(Keyword) 평균 건수	2.8	2.3	2.5	2.4

1.4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구성요소 관점의 Keyword 분석

외부감사인이 언급한 주요 취약점 중에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구성요소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항목을 회계처리 영역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중요한 취약점 관련 Keyword –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구성요소 영역 관점

대분류	소분류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항목	비중	항목	비중	항목	비중	항목	비중
평가 및 회수기능성 (35%)	금융자산 및 금융상품	10	17%	7	16%	7	13%	5	10%
	CGU 및 유무형자산	1	2%	6	13%	5	10%	4	8%
	종속기업, 관계기업투자	9	15%	5	11%	7	13%	7	14%
특수관계자거래 인식 및 공시 (27%)	특수관계자 거래 – 인식	9	15%	6	13%	8	15%	9	18%
	특수관계자 거래 – 범위 및 공시	5	8%	2	4%	4	8%	12	24%
특정 계정 관련 (23%)	수익인식	6	10%	8	18%	7	13%	2	4%
	재고, 리스 등	5	8%	6	13%	8	15%	6	12%
계속기업 관련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평가 관련	9	15%	2	4%	1	2%	2	4%
기타	비경상거래, 회계정책 등	5	8%	3	7%	5	10%	4	8%
계		52	100%	45	100%	52	100%	51	100%

연도별로는 세부적인 회계처리 영역별 그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회계처리의 영역을 자산의 평가 및 회수기능성, 특수관계자 거래, 특정 계정과목과 관련된 통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3가지 구분과 관련되어 미비점으로 언급된 부분이 85%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회계정책의 미비나 비경상적 거래에 대한 파악 및 반영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지적의 비중은 10% 이내로, 보다 재무제표 계정과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통제 미비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2022년 중요한 취약점 중 회계처리 관점에서 두드러진 항목은 CGU 및 유형자산손상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감소하였고 관계기업투자나 금융자산부채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증가한 것이다.

세부 Accounting 영역의 변동은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상 Accounting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할 항목은 회계추정치와 비경상거래로 인한 회계처리 반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경영진은 ① 회계추정치 항목으로 요약될 수 있는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손상평가와 ② 비경상적이거나 대규모 특수관계자 거래의 결과인 특수관계자 거래의 인식 및 공시와 관련된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③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회계처리 영역인 수익인식과 재고자산 등과 관련된 통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2. 경영진과 감사(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과정에서 주된 고려요소로 여겨지는 핵심감사제도,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 감사의견과의 연관성,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 평가결과와 외부감사인의 평가결과의 일관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가 고려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1 핵심감사사항목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사유

2020년부터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핵심감사제는 외부감사 과정에서 보다 중점적으로 점검한 항목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상세히 기술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시기구의 의사소통의 확대를 통한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핵심감사사항(KAM)이란,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한 사건들에 대해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 것으로 감사 수행과정에서 유의하게 감사인의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다. 이와 같이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목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감사를 수행하므로 핵심감사사항목과 연관된 내부통제절차도 감사과정에서 점검하게 된다.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변형된 회사의 핵심감사사항목과 이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으로 포함된 항목은 아래와 같다.

표5. 핵심감사사항목과 내부통제 미비점 지적 일치율

핵심감사사항목	수익인식	공정가치 평가	손상평가	재고자산	부정사건	특수관계자 거래	합계
핵심감사사항목(*)	9	7	13	2	2	6	39
핵심감사사항목 중 미비점 지적건수	4	1	7	2	2	3	19
핵심감사사항목과 미비점 지적 일치율	44%	14%	54%	100%	100%	50%	49%

(*) 상기 핵심감사사항목 개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변형된 회사 중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인 회사,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자료제출 미비로 인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거절인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핵심감사사항목 합계임.

특수관계자 거래가 핵심감사사항목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 핵심감사사항목 중 19건의 경우 내부관리제도 감사(검토) 과정에서 미비점으로 언급되어 핵심감사사항목과 미비점 지적사이의 일치율이 약 50% 수준에 이르렀다.

세부적으로는 유형자산, 영업권, 종속기업투자, 관계기업투자 등과 관련된 손상평가 항목이 가장 많은 수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며, 수익인식과 특수관계자거래 일치 건수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평가나 원가계산 등과 같이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관련된 항목, 그리고 기중에 발생한 부정 사안 등 감사과정 중 인지하게 된 이슈가 있는 경우는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함과 동시에 내부통제 관점도 고려하여 의견형성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나 그 결과로 계상된 투자자산에 대한 손상평가, 그리고 부정사건 등은 비경상적인 거래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는 항목으로서, 이러한 비경상적인 거래는 해당 거래가 내포하고 있는 고유의 위험이 크고 유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내부통제관점에서도 심도 있는 고려가 이루어진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 또한 이러한 비경상적인 거래의 실질과 그 재무적인 효과, 경영진이 개입되어 통제를 무시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고유 위험이 큰 사안임을 이해하고, 거래의 실질에 대한 파악과 동시에 재무제표에 거래의 실질이 반영될 수 있는 통제제도가 유효한지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변형 사유를 구성하는 미비점에는 그 언급이 많지 않았으나, 2022년 의견변형 사유에 새로 포함되었거나 그 빈도가 늘어난 항목은 아래와 같다. 이는 부정 관련항목과 내부회계 운영관련 항목이며, 전반적으로 볼 때 부정과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표6. 감사인 미비점 지적사항의 새로운 Keywords

새로운 Keywords	2019	2020	2021	2022	내부회계관리제도와의 연계성
부정 관련 내부통제 무력화	5	1	1	5	부정 – 임직원 부정의 발견과 조치 관점
권한관리, 업무분장	-	-	3	3	부정 – 권한관리, 업무분장 관점
변화관리 및 위험평가	-	1	-	3	리스크 관리 및 내부회계 운영능력
보고서 검증 관련통제	1	1	-	3	재무제표 작성능력 – 외부전문가 평가보고서 리뷰

2.2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인 회사 중 재무제표 적정의견의 비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 상호 연관성이 큰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또한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를 별개의 의견형성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재무제표 감사의견의 결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이 비적정인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7. 내부회계 비적정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현황

재무제표 감사의견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적정의견	33	29	24	27
적정의견 이외의 비적정의견	41	49	55	50
합계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회사	74	78	79	77
재무제표 감사 적정의견 비율	45%	37%	30%	35%

외부감사인은 기업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대한 의견을 두가지 방식으로 정보이용자에게 제시한다. 하나는 재무제표 수치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인 재무제표 감사의견의 형태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과정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견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의견의 형태로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2022년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임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의견이 비적정인 회사가 33개사로 전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회사 중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부로 공시된 재무제표 수치 자체는 적정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재무제표를 산출하는 과정은 적정하지 않음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 비중이 과거 3년의 해당 비중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 자체에 대한 정보제공의 질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포함될 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재무제표 의견이 비적정인 동시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또한 비적정인 비중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이 1천억 이상 상장회사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비적정인 회사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태도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2.3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일치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은 3가지로 구분되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된다. 먼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통해 경영진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부통제에 대한 의견이 제공되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통해 외부감사인 관점의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이 표명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의 형태로 회사의 내부감시기구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평가한 결과가 제공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 감사기준상으로는 미비점에 대한 판단과 평가에 있어 경영진, 외부감사인 그리고 내부감시기구간 적용되는 기준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준상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가 의견을 형성하는 시기가 다르거나, 또는 판단을 위한 제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균형적이지 않아 경영진, 외부감사인, 그리고 내부감시기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최종결론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표8.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의견 일치율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외부감사인 내부회계 의견변형 회사 수	74	78	79	77
경영진 내부회계 의견변형 회사 수(*)	13	8	2	7
외부감사인과 경영진 의견 일치율	18%	10%	3%	9%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상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된 회사의 수이며, 운영실태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지난 4년간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이 변형된 회사에 대한 경영진의 내부회계 의견변형 회사의 수와 두 당사자간의 의견이 일치하는 정도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외부감사인과 경영진의 의견일치율이 약 10% 이내였으나, 2022년의 경우 그 일치율이 18%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내부감시기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상 비적정의견을 표명한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9. 내부감시기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의견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외부감사인 의견변형 회사 수	74	78	79	77
감사가 내부감시기구인 경우 비적정 비율	18%	10%	11%	14%
비적정의견	11	7	7	9
적정의견	49	60	57	55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시기구인 경우 비적정 비율	25%	11%	8%	11%
비적정의견	3	1	1	1
적정의견	9	8	11	8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상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된 회사의 수이며, 운영실태평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상기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과 경영진 및 내부감시기구의 의견이 일치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에 따른 경영진과 내부감시기구의 법적 책임의 증가와 맞물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깊어지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4 맷음말

2022년은 별도 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첫해로서 대다수의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에 대한 경험을 겪은 한 해였다. 2022년을 겪으면서 경영진과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였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은 물론 경영진과 감사(위원회) 또한 함께 호흡하고 긴밀한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한해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과정과 상호 이해증진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부수적인 결과물이 아닌, 외부 정보이용자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기업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대상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별도의 기업 정보제공의 대상, 즉 subject matter로 인식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부통제제도의 5가지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별로 달성하여야 하는 17가지 원칙에 보다 집중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재무보고의 신뢰성 확보라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을 저해하는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집중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2023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영진, 외부감사인 그리고 감사(위원회)가 건설적인 측면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Contact

삼일회계법인
KSOX 내부회계전담팀

정구진 Partner

goojin.jeong@pwc.com
02-3781-9757

www.samil.com

S/N: 2305A-RP-020

© 2023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